

『채식주의자』와 『82년생 김지영』의 아랍어 번역 명시화 연구: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 양 희 정*

Yang, Heejung

A Study on the Explication in Korean-Arabic Translation of *The Vegetarian* and *Kim Jiyoung, Born 1982*: Focusing on Patriarchy

This study analyzed how patriarchy is represented in the Arabic translation of Han Kang's *The Vegetarian* and Cho Nam-joo's *Kim Jiyoung, Born 1982*. Patriarchy has appeared in different forms depending on the era and region. In Korea, patriarchy has weakened compared to the late Joseon Dynasty, but it still retains its basic structure, while in the Arab world, patriarchy is strongly appeared through the influence of Qur'an, Hadith and Fatwa,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male scholars. This study analyzed texts translated into Arabic based on the theory of explication presented by Klaudy et al. It classified the types of translation into 'optional explication', 'pragmatic

* 한국의국어대학교, 강사, E-mail: hjiang2953@hanmail.net



explicitation' and 'non-explicitation', and examined the ways of explicitation and its effects. The results of the study confirmed that patriarchy which appeared in the original text, tended to be reduced in the translation, and the main reason was analyzed as the translator's intervention or mistranslation. This study revealed cases of proper translation and mistransl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ranslated texts, and presented examples of words or sentences that need to be retranslated.

[Key Words: explicitation; *The Vegetarian*; Kim Jiyoung, Born 1982; patriarchy; literary translation]

I. 서론

『채식주의자』는 2024년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16년 아시아 최초로 인터내셔널 부커상(The International Booker Prize)을 수상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고 번역학계에서는 영역서인 *The Vegetarian*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은 2018년 출간 2년 만에 국내 누적 판매량 백만 부를 넘어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 그 당시 페미니즘 물결 속에 많은 여성들의 지지를 받았던 작품이다(강주화 2018). 2016~2020년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으로 해외에서 출간된 한국문학 판매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82년생 김지영』은 10개 언어권에서 30만 부 이상 판매되어 1위를 차지했고 『채식주의자』는 13개 언어권에서 16만 부 이상 판매되어 2위를 차지했다. 2024년까지 한국문학번역원의 꾸준한 지원을 받아 『채식주의자』는 총 21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82년생 김지영』은 총 16개 언어로 번역되었다(한국문학번역원 2022, n.d.).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아온 두 작품은 각각 2018년, 2021년 한국문



학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아랍어로 번역·출판되었다. 두 작품 모두 아랍인 번역사가 한국어에서 아랍어로 직접 번역했다. 본격적으로 한국문학이 아랍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문학을 한국어에서 아랍어로 직접 번역한 이들은 대부분 한국인이었다. 2005~2017년 한국문학번역원 등의 기관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아랍어로 번역·출판된 한국작품 총 27개 중 2005~2008년 출간된 10개의 번역서는 한국인이 번역했거나 한국인이 아랍인과 공동으로 번역했다. 2011년 처음으로 아랍인이 번역한 작품이 출판되었고, 이후 2017년까지 총 14개의 번역서를 아랍인이 번역했다(곽순례 2018, 20-23). 그리고 2022~2024년 최근 3년간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아랍어로 번역된 총 18개의 작품 중 17개의 작품을 아랍인이 번역했다(한국문학번역원 n.d.). 『채식주의자(النباتية)』와 『82년생 김지영(1982 عام مولودة عام)』 역시 마흐무드 압둘 가파르(محمود عبد الغفار)와 마나르 알디나리(منار الديناري)가 각각 아랍어로 번역했다. 이처럼 아랍인 번역사의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아랍인이 번역한 작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채식주의자』와 『82년생 김지영』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여성 작가, 그리고 가부장제다. 두 작품에는 한국의 가부장제를 묘사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마나르 알디나리는 『82년생 김지영』을 번역하는 동안 주인공이 이집트 여성들과 비슷해 공감할 수 있었고 작품이 아랍권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이 충분하다고 보았다(임현석 2021). 아랍·이슬람권에서 가부장제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가부장제의 역사는 수렵 채집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일부사처제, 여성의 베일 착용, 상속 시 남녀 불평등에 관한 샤리아(الشريعة, 이슬람 법)의 규범이 강조되면서 ‘이슬람은 가부장적’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그 원인은 무슬림들의 인식 체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계시 문서인 코란과 하디스(الحديث, 무함마드의 언행록)를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남성 학자들이 수집하고 기록, 해석했기 때문이다(임병필 2019: 120). 그렇다면 원서에 나타난 한국의 가부장제는 번역서에 어떻



게 명시되었을까? 두 문화권 모두 가부장제라는 지배 형태가 존재하지만, 언어·문화적 차이와 번역사의 해석에 따라 원서의 가부장제가 번역서에서 여러 방식으로 명시되거나 명시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채식주의자』와 『82년생 김지영』에서 가부장제가 나타난 문장을 아랍어 번역문과 비교·분석했다. 클라우디(Klaudy) 등이 제시한 명시화(explicitation) 이론을 토대로 번역의 유형을 ‘선택적 명시화’, ‘화용적 명시화’, ‘비명시화’로 분류했고, 원문의 의미가 강조 또는 축소, 생략되었거나 오역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연구했다.

II. 이론적 고찰

1. 번역에서의 명시화

명시화는 비네와 다르벨네(Vinay & Darbelnet 1958)가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비네와 다르벨네는 명시화를 “원문에 함축적으로 존재하지만 문맥이나 상황을 통해 유도할 수 있는 정보를 번역문에 소개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블룸-쿨카(Blum-Kulka 1986)는 최초로 명시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명시화 가설(explicitation hypothesis)’ 이론을 통해 번역사가 원문을 해석하는 과정은 원문보다 더 잉여된(more redundant) 번역문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잉여(redundancy)가 발생함으로써 번역문이 원문보다 더 명시적인 것이 된다고 보았다(한정은 2020, 204, Baker 1998; 한국번역학회 옮김 2009, 132, 134, Blum-Kulka 1986, 19). 그러나 세귀노(Séguinot 1988)는 블룸-쿨카의 명시화 이론이 편협하다고 비판했다. 세귀노는 잉여가 명시화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두 언어 간의 구조적, 문체적, 수사적 차이로 인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번역문에 첨가되었을 경우 명시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명시화를 증명하려면 덜 명시적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시화의 유형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했다(Séguinot 1988, 108).

- 1) 원문에 없었던 것이 번역문에서 표현되는 것
- 2) 원문에서 추정을 통해 암시되거나 함축되어 있던 것이 번역문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것
- 3) 원문에 있었던 요소가 강조 또는 어휘 선택을 통해 더 강조되는 것

반면 클라우디(1993, 1998)는 첨가가 유일한 명시화의 수단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번역에 나타나는 명시화를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했다(김자경 2021, 8, 한정은 2020, 205-206, Klaudy 1993).

- 1) 의무적 명시화: 두 언어의 구조적 차이로 나타나는 필수적인 명시화다. 통사적 차원의 명시화로서 명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문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번역문이 비문이 된다.
- 2) 선택적 명시화: 선호하는 문체나 구성 전략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명시화다. 명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는 번역문이 된다.
- 3) 화용적 명시화: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명시화다. 원문 독자에게는 익숙한 어휘나 정보가 번역문 독자에게는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번역문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에 없는 정보를 추가하거나 원문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을 찾아서 대체하는 것이다.
- 4) 번역 내재적 명시화: 번역 과정의 본질적 특성으로 발생하는 명시화로서 번역사가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행하는 명시화다.



그러나 네번째 유형인 번역 내재적 명시화는 그 경계가 모호하다. 디미트로바(Dimitrova 2005)는 번역 내재적 명시화가 선택적 명시화의 하위 항목이라 할 수 있고, 베커(Becher 2010)는 이 둘을 나누는 것이 현실적으로 모호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자경 2021, 8).

본 연구는 클라우드의 명시화 유형을 근거로 번역문을 분석했고, 경계가 모호하거나 분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을 제외한 ‘선택적 명시화’, ‘화용적 명시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번역사의 선호하는 문체나 구성 전략 뿐만 아니라 번역사의 해석이 개입되어 발생하는 명시화도 나타났는데, 이를 선택적 명시화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또한 특정 어휘가 생략되어 원문의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드러나지 않은 문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문에 명시적으로 나타난 요소를 번역문에서 생략하는 것은 ‘비명시화’이며 이 또한 명시화 전략의 일환(장현주 2006; 한정은 2020, 207)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택적 명시화’, ‘화용적 명시화’, ‘비명시화’로 번역의 유형을 분류해 분석했다.

2. 가부장제

가부장제는 ‘가장인 남성이 강력한 가장권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하는 가족 형태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장의 지배를 뒷받침해 주는 사회체계를 일컫는 제도’다(한국학중앙연구원 n.d.). 좁은 의미로의 가부장제는 남성이 가장권을 행사하며 가족 구성원을 통솔하는 가족의 형태로서 이를 ‘사적 가부장제’라 지칭한다. 넓은 의미로의 가부장제는 사회 전반적인 관계를 남성 중심으로 설정하는 체제로서 이를 ‘공적 가부장제’라 부른다(두산백과 n.d.).

가부장제는 시대와 지역마다 서로 다른 형태로 발현되어 왔다. 한국의 가부장제는 수렵 채집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겪어 왔으

며 조선 후기에 부계 혈통주의 등을 중심으로 고도화되었다. 가부장제의 성격은 가부장권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아버지의 절대적인 지배권, 가산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 가계 승계권이 그것이다. 현대의 가부장적 사회체제는 조선 후기보다 약화되었지만 기본 골격은 유지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 강화되었던 부계 혈통주의, 장자 우선주의, 남아 선호 사상의 영향으로 남성이 가족 구성원 뿐만 아니라 집단으로서 여성과 연소자를 지배해 왔다. 가부장제에서 남성은 가치 체계의 상위를 차지하고 여성은 이분법적 가치 체계의 하위에 위치하여, 성차별로 이어지기도 한다(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연구소 2002, 조옥라 1986, 한국학중앙연구원 n.d.).

가부장제는 아랍어권에서도 뿌리 깊다. 파트와(فتوى)¹를 통해 아랍·무슬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거나 경험하는 가부장제를 확인할 수 있다. 『파트와를 통해 본 이슬람 사회의 규범과 현실』에 따르면, 이슬람 법학자들은 후견인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여성의 혼인 계약을 합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4대 법학파가 정한 후견인 순위에 차이는 있지만 후견인은 주로 아버지, 아들, 친형제, 친조부, 삼촌 등 부계 혈통의 가족 구성원이다(이훈동 외 2016, 77-79, 86-87). 혼인 계약 시 남편은 아내의 후견인에게 마흐르(المهر, 결혼지참금)를 지불하는데, 혼인 계약은 남편이 아내에게 마흐르를 지불하는 대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대가 관계가 성립되는 유상 계약이다(95). 무슬림 남성이 아내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조건으로 네 명의 아내와 혼인하는 것을 허용하고(145-146), 남편이 아내와 자녀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하고(164-165), 아내는 남편에 대한 순종을 친정 부모에 대한 순종보다 우선해야 하고(178-179), 아내는 남편의 허락이 있을 때에만 외출할 수 있는(181) 등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의 보호와 지배를 받는 존재다. 또한 유산

¹ 현실 생활에서 맞닥뜨리는 구체적인 사안이 있어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슬람 전문가가 코란과 하디스, 이즈마(الإجماع, 합의), 끼야스(قياس, 유추) 등 샤리아 법원의 근거에 입각해 내리는 판단이다. 질문자의 질의에 대해 전문가가 답변하고 설명할 때 “파트와를 낸다”고 한다(이훈동 외 2016, 3).



상속 시 아들이 딸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314-315)과 남아 출산을 위한 수태 가능일과 출산일 계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판단(문재완 외 2016, 282)을 통해 남아 선호 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무슬림 여성이 스튜어디스나 호텔 직원으로 일하는 것은 외간 남자들과 접촉이 일어날 수 있고 남성들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는다(27)거나 여성의 신체 부위 노출 때문에 남성들 앞에서 수영하거나 외간 남성과 함께 축구 하는 것을 금한다(235)는 파트와를 통해 아랍·이슬람권에서 강력하게 발현되고 있는 공적 가부장제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판단과 해석이 남성 법학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학자들도 있다.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코란의 재해석을 시도한 바바라(Barbara 1994)와 아스마(Asma 2002)는 아랍여성의 종속적인 지위에 대한 원인을 이슬람에서 찾기보다 가부장제에서 찾았으며 남성 중심으로 해석되어온 샤리아의 해석 방식에서 탈피할 것을 요구했다(엄익란 2014b, 83). 아랍어권에서 가장 보수적인 걸프지역은 ‘가부장제의 요새와 맹목적인 남성우월주의’ 문화권으로 묘사되는데(Al-Lamky 2006; 엄익란 2014a, 182), 중동 산유국 등에서는 석유시대 도래 이전 여성의 농업과 상업 활동에 대한 참여가 자유로웠으나 석유시대 이후 가족의 생계를 남성에게 의존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국가적 차원의 공적 가부장제가 강화되었다(Ross 2008; 엄익란 2014b, 75).

이처럼 두 문화권 모두 가부장제가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형태와 깊이로 발현되고 있다.

3. 선행연구

번역에서의 명시화 연구는 문학 번역을 비롯해 영상 번역, 만화 번역, 게임 번역, 사설 번역 등 여러 영역에서 이뤄졌다.

국내 문학 번역의 명시화 연구들을 살펴보면, 남철진(2016)은 세키노가



주장한 명시화의 개념을 근거로 중한 문학 번역에서 명시화로 인해 나타난 잉여적 요소와 그 영향에 대해 고찰했으며, 신지언(2017)은 한중 문학 번역에서 문장 구성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명시화와 어휘 층위에서 나타나는 명시화, 명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에 대해 분석했다. 노은주(2018)는 『채식주의자』의 영역서에 사용된 부사 just를 중심으로 원문의 함축된 의미를 명시적으로 번역한 사례에 대해 연구했으며, 안미영(2018)은 누난(Nunan 2004)의 텍스트 평가 기준을 근거로 같은 번역서에 나타난 명시화 전략의 적절성과 역효과에 대해 고찰했다. 한정은(2020)은 한중 문학 번역에 나타난 명시화 양상을 클라우드의 네 가지 명시화 유형 중 의무적 명시화와 선택적 명시화를 기반으로 연구했고, 마승혜와 김순영(2021)은 북한 소설의 영역서에 나타난 원문 감정표현의 명시화 전략을 상위감정어를 하위감정어로 명시화, 행동에 내포된 감정의 명시화, 상황에 내포된 감정의 명시화, 간접적 감정표현의 직접적 명시화로 분류해 분석했다. 최지수(2024)는 클링베르크(Lingberg 1978), 신지선(2005), 성승은(2010) 등의 아동문학 번역규범을 토대로 독일 아동문학 한역서에 나타난 단순화 전략과 명시화 전략에 대해 연구했다.

이 외에도 중한 영화 자막 번역에서 원문보다 문장의 길이가 짧아진 문장을 분석해 명시화의 유형을 맥락, 함축, 강조, 비언어적 요소에 의한 명시화로 분류한 연구(권설아 2020)와 페레고(Perego 2003)가 제시한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생하는 명시화’ 개념을 토대로 영한 게임 번역에 나타난 명시화 양상을 분석한 연구(김홍균 2021)가 있다. 그리고 만화와 소설의 중간 형식인 그래픽 노블(graphic novel)의 한영 번역에 나타난 명시화 전략을 체계기능언어학의 메타기능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김자경 2021)가 있으며, <BBC Science> 표제의 영한 인간 번역과 ChatGPT 번역을 비교·분석해 독자 이해, 관심 끌기, 문화적 차이 해소를 위해 취해진 명시화 현상에 대해 고찰한 연구(최효은 2024)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채식주의자』와 『82년생 김지영』은 국내외적



으로 지대한 관심을 받은 작품으로서 젠더 번역, 번역 비평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뤄졌다. 아랍어 번역 연구로는 『82년생 김지영』의 문화어휘 번역 방법에 대해 연구한 “한국어-아랍어 문화어휘 번역방법 연구(곽순례 2022a)”와 같은 작품 텍스트의 기계 번역 오류를 연구한 “문학텍스트의 한-아 기계 번역 오류 연구(곽순례 2022b)” 등이 있다. 본 연구는 두 작품의 아랍어 번역서에 나타난 명시화 양상에 대한 첫 연구이며, 『채식주의자』 영역서의 명시화를 연구한 노은주(2018), 안미영(2018)과 달리 클라우디 등의 명시화 유형과 비명시화 이론을 토대로 가부장제와 관련된 문장들을 분석했다.

III. 분석 결과

2007년 출간된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 3부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작은 주인공 영혜 남편의 시점, 2부작은 영혜 형부의 시점, 3부작은 영혜 언니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1부작에서는 영혜의 남편이 장인의 모습과 성격을 묘사하는 문장에서, 3부작에서는 영혜의 언니가 과거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는 문장에서 사적 가부장제가 나타난다. 2016년 출간된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은 더 다양한 시점의 가부장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 김지영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정에서 나타난 사적 가부장제와 학교, 직장 등에서 나타난 공적 가부장제를 확인할 수 있다. ‘1982년~1994년’에서는 할머니와 손자, 손녀의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 등을 묘사한 문장에서 가부장제를 확인할 수 있고, ‘1995년~2000년’과 ‘2001년~2011년’에서는 주인공의 성장 과정과 취업 후의 삶, 결혼 전의 삶을 묘사한 문장에서, ‘2015년 가을’과 ‘2012년~2015



년’ 등에서는 주인공의 결혼 후의 삶을 묘사한 문장에서 가부장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가부장제가 나타난 문장과 아랍어 번역문을 비교·분석했고, 분석 결과를 가장 많이 나타난 번역 유형 순(선택적 명시화, 화용적 명시화, 비명시화)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에서는 원문이 직역되어 기존의 의미가 그대로 나타난 번역문을 배제한 총 21개의 번역 사례들을 살펴보겠다. 선택적 명시화와 화용적 명시화가 나타난 번역문에서는 어휘나 문장이 대체 또는 설명되었거나 새로운 어휘가 첨가되었다. 비명시화가 나타난 번역문에서는 어휘나 문장이 생략되었다. 이에 따라 원문의 의미가 강조, 축소, 생략되었거나 오역된 사례 등이 있었다.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아랍어학을 전공한 원어민 교수의 자문을 구해 각 문장의 분석 내용을 검토했다. 예시에서 『채식주의자』의 원문은 ST1, 『82년생 김지영』의 원문은 ST2로 표기했고, 번역문은 각각 TT1, TT2로 표기했다².

1. 선택적 명시화

번역사의 선호하는 문체나 구성, 해석으로 인해 어휘나 문장이 대체, 설명되었거나 새로운 어휘가 첨가된 명시화의 예다.

예1)

ST1: 말이 없으면 좋다, 어른들은 원래 저런 여자를 좋아한다고,(29)

TT1: فلا بأس ببقائها صامته. إن كبار السن يفضلون المرأة الرزينة،(27)

ST1에서 영혜의 남편은 탐탁치 않은 영혜의 옷차림과 조용한 성격에 대

² ST는 Source Text의 약자로서 원천 텍스트(원문)를 지칭하고, TT는 Target Text의 약자로서 목표 텍스트(번역문)를 지칭한다.



해 언급한 후 예1)과 같이 그래도 어른들은 말이 없는 ‘저런 여자’를 좋아하니 괜찮다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ST1의 ‘저런’은 TT1에서 ثابت ساكن, ثابت의 유의어인 ‘الرزينة(조용한, 차분한, 침착한)’로 대체됐다. ‘저런’은 영혜의 성격과 행동을 비하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الرزينة’로 번역되면서 부정적 의미가 사라졌다. ‘저런 여자’는 ‘مثل تلك المرأة’로 번역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독자는 문맥상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예2)

ST1: 생전 전화하는 법 없던 장인까지 아내에게 호통을 쳤다.(37)

TT1: وكان حماي بصرخ في زوجتي في الهاتف الذي لم يستعمله من قبل قط.(36)

예2)의 ST1은 영혜 남편의 관점에서 ‘생전 전화하는 법 없던 장인’이 채식을 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치는 상황을 묘사한 문장이다. 평소 딸에게 안부 전화를 하지 않을 정도로 딸에게 무관심한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성격이 잘 드러난다. 밑줄 친 부분은 TT1에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전화기로’로 대체되어 장인이 아내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도 전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어인 ‘حماي’를 수식하는 관계절로 바뀌어서 ‘وكان حماي الذي لم يتصل بزوجتي من قبل قط بصرخ فيها في الهاتف’로 번역한다면 딸에게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던 장인’으로 해석되어 원문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예3)

ST2: “아이고 사부인, 사실 우리 지영이 명절마다 몸살이에요.”(17)

TT2: «حقيقة يا سيدتي إن عزيزي داي هيون هو الذي يعاني من إرهاق كل عيد». (16-17)

예3)의 ST2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지영이 지영의 어머니로 빙의해 시택에서 명절마다 고생하는 것을 아느냐고 시어머니에게 하소연하는 문장으로서 부계 중심의 명절 문화를 꼬집는다. TT2에서 ‘우리 지영이’는 ‘나의



사랑하는 대현이'로 대체됐다. 예3)의 TT2 문장을 제외한 앞 뒤 문장에서 는 자신의 어머니로 빙의한 지영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즉 번역사는 주인공의 빙의한 모습을 일부러 없애려고 대체한 것이 아니며 오역한 것이다. TT2에서는 가부장적인 시대에 답답함을 느끼는 며느리의 감정이 사라져 버렸다.

예4)

ST2: 젓가락이나 양말, 내복 상하의, 책가방과 신발주머니들이 동생 것은 온전하게 짝이 맞는데 언니와 김지영 씨 것은 제각각인 것도 당연했다.(25)

TT2: وكان من الطبيعي أيضا أن يحظى الأخ بعيدان طعام وجوارب وملابس داخلية وحقيبة مدرسية وحقيبة أهدية، كلها مثالية ومتطابقة الشكل، في حين تشاركت كيم جي يونج وشقيقتها مقتنياتها في حدود المتاح،(21)

예4)의 ST2는 남동생에게는 온전한 물건들을 챙겨줬지만 언니와 지영의 물건은 제각각인 것이 당연했던 어린 시절 가족 분위기를 묘사한 문장이다. ST2의 밑줄 친 부분은 TT2에서 동사 'تشاركت(공유했다)'와 전치사구 'في حدود المتاح(가능한 한)'로 대체되어 '김지영과 언니는 가능한 한 물건들을 공유했다'로 번역되었다. ST2에서는 예4) 문장에 뒤이어 '…… 하나를 같이 썼고, …… 하나를 같이 썼었고, …… 나머지 한 개를 나눠 먹었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TT2 번역사는 'تشاركت'를 4번 연달아 사용해 예4)의 문장과 뒤 문장의 구조를 획일화했다. 예4)를 'وكان من الطبيعي أن تكون عيدان الطعام والجوارب والملابس الداخلية العلوية والسفلية والحقيبة المدرسية وحقيبة الأهدية الخاصة بأخي الأصغر مثالية ومتطابقة الشكل، والملابس الداخلية العلوية والسفلية والحقيبة المدرسية وحقيبة الأهدية الخاصة بكيم جي يونج وشقيقتها كانت غير متطابقة الشكل(남동생의 ……은 온전하고 짝이 맞지만 언니와 김지영의 것은 짝이 맞지 않는 것이 당연했다)'로 번역한다면, 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딸들의 물건은 '제각각인 것이 당연했다'라는 원문의 의도를 살리면서 가정 내 남녀 차별을 더 분명하게 명시할 수 있다.



예5)

ST2: 김지영 씨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갓난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아가, 미안하다, 하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27)

TT2: عندما أنجبت أوه مي سوكت طفلتها الثانية كيم جي يونج، حملتها في حضنها وانتحبت مطأطة الرأس وقالت لحمايتها: «أسفة يا أمي، إنها أيضا فتاة».(24)

예5)의 ST2는 지영의 어머니가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시절에 태어난 둘째 딸 지영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다. ST2의 밑줄 친 부분은 TT2에서 “어머니, 죄송해요. 또 여자 아이예요”라고 시어머니에게 말했다’로 번역되었다. ST2에서는 앞서 첫째 딸 은영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죄송해요, 하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번역사가 이 문장과 같은 맥락으로 오역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들을 바랐던 시어머니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강조되고, 환영 받지 못하는 둘째 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사라졌다.

예6)

ST2: “예전에는 방망이 두드려서 빨고, 불 때서 삶고, 찌그러서 쓸고 닦고 다 했어. 이제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하고, 청소는 청소기가 다 하지 않나? 요즘 여자들은 뭐가 힘들다는 건지.”(148)

TT2: «قديمًا كانت النساء يقصدن المغسلات الكبيرة لغسيل الملابس، ويشعلن النار لغلي ملابس الأطفال، ويجلسن الفرصاء للكس والمسخ والتنظيف، أما الآن فالغسالة الكهربائية تتجز كل الغسيل بينما تتولى المكينة التنظيف، ما المرهق فيما تفعله نساء اليوم؟»(151)

ST2에서 지영은 손목이 아파 병원을 찾는다. 할아버지 의사는 손목을 많이 쓰지 말고 쉬라고 하지만 지영은 육아와 집안일로 손목을 안 쓸 수가 없다고 푸념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의사는 예6)과 같이 여성이 당연히 해야 하는 집안일을 과거에는 더 힘들게 했는데 뭐가 힘들



나며 지영에게 편잔을 준다. ST2의 첫 번째 밑줄 친 부분은 TT2에서 ‘옷을 빨기 위해 큰 빨래터로 향했다’로 대체됐다. 과거 TT 문화권에서도 강가에 앉아 나무로 만든 빨랫방망이인 미크바뜨(المخباط)를 사용해 빨래를 했다(عهد رستم 2020). 미끄바뜨는 현대 아랍인들에게는 낯선 단어이기 때문에 TT2에서는 ‘큰 빨래터’로 대체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원문에 나타난 ‘방망이를 두드릴’ 정도의 고단함이 축소되었다. ST2의 ‘불 때서 삶고’는 TT2에서 ‘아이들의 옷’에 한정되어 번역되었으며, 이 또한 과거 여성들의 고단함이 축소되었다. 결과적으로 할아버지 의사의 가부장적인 생각을 뒷받침하는 예시의 의도가 축소된 것이다.

이외에도 선택적 명시화가 나타난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ST1	TT1	TT1 밑줄 해석	ST1 밑줄 재번역	TT1 분석 요약
<p>빨에서 피가 비칠 만큼 아내는 세계 맞았다.(49)</p>	<p>كانت صفتها بالغة القوة لدرجة أن خدتها احمر. (49)</p>	<p>빨이 빨개질 정도로</p>	<p>حتى كاد الدم ينفر من خدتها</p>	<p>직유법의 의미를 설명함. 불같은 성격의 장인이 아내를 때린 힘이 축소됨. 장인의 성격을 명시하기 위해 재번역(빨에서 거의 피가 나올 정도로)을 제안함.</p>
ST2	TT2	TT2 밑줄 해석	ST2 밑줄 재번역	TT2 분석 요약
<p>큰외삼촌은 집안을 일으키고 가족을 부양한 책임감 있는 장남이라고 칭찬받았다.(35)</p>	<p>وتم الإشادة بالشقيق الأكبر كونه الابن البار المسؤول الذي قام بمساندة الأسرة ودعمها. (32)</p>	<p>책임감 있는 (충실한) 아들</p>	-	<p>‘وفى’(진실된, 충실한)의 의미를 갖는 ‘البار’가 첨가됨. ‘البار’를 생략할 경우 ‘책임이 있는 아들’로 해석될 수 있음. 원문이 의도하는 장자 우선주의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TT2의 번역이 적합하다고 판단됨.</p>



2. 화용적 명시화

TT 문화권 독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어휘나 문장이 익숙한 어휘나 문장으로 대체되거나 설명된 명시화의 예다.

예7)

ST1: 아내는 그 아버지에게 열여덟살까지 종아리를 맞으며 자랐다고 했다.(38)

TT1: وقد قالت زوجتي إنه كان يجلد على بطة الساق حتى سن الثامنة عشرة. (37)

ST1에서 영혜의 남편은 어리지 않은 나이임에도 아버지에게 ‘종아리를 맞으며 자랐다’는 아내의 말을 언급한다. 암묵적으로 체벌이 당연시되었던 시절의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이다. ST1의 밑줄 친 부분은 아랍어로 ‘بطة’(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곤 했다)’로 번역할 수 있다. TT1에서는 ‘때리다’의 동사가 TT 문화권에서 익숙한 ‘يجلد’로 대체되어 ‘종아리를 채찍질하곤 했다’로 번역되었다. 이 동사는 하디스 구절에도 나온다.

«لَا يُجْلَدُ فَوْقَ عَشْرَةِ أَسْوَاطٍ، إِلَّا فِي حَدِّ مِنْ حُدُودِ اللَّهِ.»

이슬람 법학자들은 위 구절을 근거로 아동을 체벌할 시 열대 이상의 채찍질을 금한다는 파트와를 내기도 했다(إسلام ويب 2020). ‘يجلد’(채찍질하다)’와 ‘يضرب بالعصا’(회초리로 때리다)’ 모두 TT 언어권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두 번째 표현으로 번역할 경우 과거 ST 문화권에서는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회초리를 사용해 자녀를 체벌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효과가 있다.



예8)

ST1: 마침내 다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장인이 한번 더 아내의 뺨을 때렸다.(51)

TT1: هبت فورة غضب حمائي ثانية، وفي النهاية صفع زوجتي مرة أخرى.(51)

예8)의 ST1의 밑줄 친 부분은 ‘몹시 화나다’의 의미를 갖는 관용적 표현이다. 이를 직역하면 ‘وصل غضبه إلى أعلى رأسه’ 또는 ‘بلغ غضبه أعلى رأسه’라는 자연스럽지 않은 번역문이 된다. TT1에서는 ‘هبت فورة غضب’(화가 치솟았다, 분노가 터져 나왔다)로 대체되어 장인의 불 같은 성격이 잘 명시되었다.

예9)

ST2: “그래도 내가 아들을 넷이나 낳아서 이렇게 아들이 지어준 뜨신 밥 먹고, 아들이 봐 준 뜨끈한 아랫목에서 자는 거다. 아들이 못해도 넷은 있어야 되는 법이야.”(27)

TT2: «على كل ما زال لدي أربعة أبناء، لذا أتناول وجبة ساخنة وأنام على وسادة دافئة حضرها لي»
(23) أحدهم، وحتى إذا لم يستطع أي منهم ذلك يجب أن يكون لديك أربعة أبناء.»

예9)의 ST2는 지영의 할머니가 아들을 넷이나 낳은 덕에 뜨신 밥 먹고 ‘뜨끈한 아랫목’에서 자는 거라며 지영의 어머니인 며느리에게 으스대는 문장이다. ‘아랫목’은 온돌방에서 아궁이에 가까운 쪽의 방바닥을 지칭한다. 밑줄 친 부분은 ‘الأرضية الدافئة (التي حضر عليها أحدهم الفراش لي)’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TT2 문화권 독자에게 온돌은 생소한 문화다. TT2 번역사는 ‘아랫목’을 ‘وسادة(베개)’로 대체했다. TT 문화권에서는 베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화용론적 의미가 없고 단순히 누울 때 머리를 괴는 물건을 지칭하기 때문에 베개보다는 ‘فراش(이부자리)’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TT2에서는 할머니가 생각하는 아들의 ‘덕’이 닿은 공간이 베개로 축소되었다.



3. 비명시화

원문의 가부장제와 관련된 어휘가 번역문에서 생략된 예는 다음과 같다.

예10)

ST1: 가부장적인 장인은 지난 오년간 들어본 적 없는 사과조의 말로 나를 놀라게 했다.(38)

TT1: ذهلتُ لسماع اعتذار حمائي. لقد عرفته منذ خمس سنوات، ولم أسمع منه مثل تلك الكلمات على الإطلاق.(37)

예10)의 ST1은 ‘가부장적인’ 장인이 채식하는 딸 영혜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사과조의 말로 부탁하자 영혜의 남편이 놀라는 장면이다. ST1의 밑줄 친 부분은 TT1에서 생략되었다. ‘가부장적인’은 가부장제(النظام الأبوي، النظام الذكوري)에서 사용되는 ‘الأبوي’ 또는 ‘الذكوري’로 직역될 수 있지만 장인을 수식할 경우 비문이 된다. ‘엄격한, 권위적인(المتسلط، الصارم)’ 등의 아랍어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11)

ST1: 억센 손가락으로 두 입술을 열었으나, 악물린 이빨을 어찌지 못했다.(51)

TT1: رغم أنه تمكن من فتح شفتيها لكنه لم يملك حيلة أمام أسنانها المطبقة بإحكام! (50)

예11)의 ST1에서 장인은 억지로 영혜의 입을 벌려 고기를 먹이려고 한다. ‘억센 손가락’은 장인의 강압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TT1에서는 이 표현이 생략되면서, 가부장적인 장인의 성격이 축소되고 오히려 악물린 이빨로 버티는 영혜의 고집이 부각되었다.



예12)

ST2: 한 문장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최대한 표현하자면, ‘감히’
귀한 내 손자 것에 욕심을 내? 하는 느낌이였다. 남동생과 남동생의
똥은 소중한고 귀해서 아무나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고,(25)

TT2: من الصعب اختصارها في جملة واحدة، ولكن إذا صح التعبير فهي: «لا أعلم لماذا كل هذا
(21) الجشع تجاه ما يخص حفيدي العزيز؟ شقيقكم ثمين ونصيبه ثمين ولا يمكن لأي أحد أن يمسه».

예12)의 ST2는 손녀가 손자의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
던 할머니의 모습을 묘사한 문장이다. 부사 ‘감히’와 ‘함부로’는 할머니가
생각하는 손자, 손녀의 지위 높낮이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심지어 ST2
의 ‘감히’에는 작은따옴표가 들어가 있다. TT2에서는 둘 다 생략되었다.
ST2의 생략된 어휘를 살려 “‘감히’ …… 안되고,’ 부분을 재번역해보면 ‘لا’
أعلم لماذا تتواحدون وتظهرون كل هذا الجشع تجاه ما يخص حفيدي العزيز؟ شقيقكم غالٍ ونصيبه غالٍ ولا يمكن
«بوقاحة’, ‘함부로’는
‘بشكل متهور’ 또는 ‘بدون إذن’ 등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재번역처럼 ‘تواحدون(무례
하다), ‘أهوج(무모한)’로 대체하는 것이 매끄럽다.

예13)

ST2: 또래 시어머니들과 달리 며느리를 아끼던 할머니는 진심으로 며
느리를 생각해 입버릇처럼 말했다. 아들이 있어야 한다,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 아들이 둘은 있어야 한다……(27)

TT2: حرصا منها على كونها على عكس الحموات من جيلها، نصحت كو بون سون كونها أوه مي سوك
(23) كاتلة: «لا بد أن تتجبي ولدا، يجب أن تحظي بابن، بل يجب أن تحظي بابنين على الأقل».

예13)의 ST2는 지영이 태어나기 전 지영의 할머니가 며느리(지영의 어머
니)에게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언급하는 문장이
다. ‘입버릇’은 입에 배어 굳은 말버릇을 의미하며, ‘입버릇처럼’은 ‘مرارا’



وتكررا(반복해서, 자꾸)’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TT2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면서 손자를 요구하는 할머니의 집요함이 축소되었다.

이외에도 비명시화가 나타난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ST1	TT1	TT1 밀줄 해석	ST1 밀줄 재번역	TT1 분석 요약
순간, 장인의 <u>억센</u>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다. 아내가 <u>뺨</u> 을 감싸 쥐었다.(49)	على الفور، كانت راحة يد حماي تشقُّ الهواء، بينما حجبَت زوجتي خدَّها المتعفر بيدها.(48)	-	.. كانت يد حماي <u>التوية تشقُّ</u> الهواء، بينما غطت زوجتي خدَّها بيدها.	원문의 ‘억센’이 생략되어 장인의 강인함이 축소됨. 반면 뺨을 수식하는 ‘ <u>ومتعفر</u> (옴푹 패인)’가 첨가되면서 채식하는 영혜의 마른 모습이 강조됨. 재번역처럼 직역할 것을 제안함.
ST2	TT2	TT2 밀줄 해석	ST2 밀줄 재번역	TT2 분석 요약
함께 살던 고순분 여사는 김지영 씨가 남동생 분유를 먹는 것을 <u>끔찍하게</u> 싫어했다.(24)	لم تستمع كو بون سون جدة كم جي بونج المقيمة معهم بالمنزل فكرة تناول جي بونج لحليب أخبها الصغير،(20)	-	كانت.. تززع بشكل فظيع من تناول جي بونج لحليب أخبها الصغير،، كانت.. تكره بشكل فظيع تناول جي بونج لحليب أخبها الصغير،	원문의 ‘끔찍하게’가 생략되어 손녀가 손자의 것을 탐하는 것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축소됨. 재번역처럼 직역할 것을 제안함.

이 외에도 두 개의 명시화 전략이 나타난 문장들이 있다.

예14)

ST1: 장인이 기차 화통 같은 목소리로 채근했다.(46)

TT1: صرخ حماي بشدة من أعماقه.(46)



예14)의 ST1은 영혜 남편의 시점에서 채식하는 영혜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채근’하는 장인의 모습을 묘사한 문장이다. ‘기차 화통 같은 목소리’는 아주 큰 목소리와 불 같은 성격을 나타내는 직유법이다. 이를 ‘صوت يشبه صافرة القطار’로 직역하면, ST1의 관용적 표현을 명시함과 동시에 TT 독자에게 문맥상 의미를 해석할 여지를 준다. 그러나 TT1에서 이 부분은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강한 (목소리)’로 설명되었다. 이 문장에는 선택적 명시화도 나타난다. ‘채근했다’는 ‘어떻게 행동하라고 따지며 독촉했다’는 의미로서 ‘حَثَّهَا’로 번역될 수 있지만, TT1에서는 ‘소리질렀다’로 대체됐다. TT1에서는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보다 큰 목소리로 딸에게 소리지르는 장인의 불 같은 성격이 강조된 것이다.

예15)

ST1: 탕수육 한점을 집어들고 상을 돌아 아내 앞에 우뚝 섰다.(48)

TT1: صرخ حمای بشدة من أعماقه التقط قطعة من لحم الخنزير الحلو اللاذع ووضعها أمام فم زوجتي.
(48)النافرة.

예15)의 ST1은 장인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보여주는 문장이다. TT1에서는 비명시화와 선택적 명시화가 나타난다. ST1의 첫 번째 밑줄 친 부분인 ‘상을 돌아’가 생략되었고 두 번째 밑줄 친 부분은 ‘아내의 튀어나온 입 앞에 놓았다’로 대체되었다. TT1에서는 장인의 고집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아내의 고집이 강조된 것이다. ST1의 밑줄 친 부분을 ‘مر بجانب المائدة ووقف أمام زوجتي بشكل مستقيم’으로 직역하면 원문의 의미를 명시할 수 있다.

예16)

ST2: “말이 씨가 된다.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자.”(29)

TT2: «ما هذا الفأل؟ كفي عن الحديث واخدي للنوم.»(25)



예16)의 ST2는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시절 또 딸을 낳을까 걱정하는 아내(지영의 어머니)에게 남편(지영의 아버지)이 하는 말로서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생각이 잘 드러난다. TT2에는 화용적 명시화와 비명시화가 나타난다. 한국 속담인 ‘말이 씨가 된다’는 TT 독자에게 낯선 표현이다. ‘말이 씨가 된다. 재수없는 소리 하지마’는 TT2에서 ‘ما هذا الفأل؟ كفي عن الحديث(이 무슨 불운한 소리야? 이야기 그만해)’로 번역되었다. ‘말이 씨가 된다’를 ‘يصبح الكلام واقعاً(말은 현실이 된다)’로 의역하면, TT 독자는 ST2의 관용적 표현에 어느 정도 노출되면서 스스로 해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ST2의 ‘재수 없는 소리’는 TT2에서 생략되었는데, 이는 ‘حديث الشؤم هذا(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로 번역할 수 있다. TT2에서는 딸을 원치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축소되었다.

예17)

ST2: “넌 그냥 얌전히 있다 시집이나 가.”(105)

TT2: «كوني عاقلة وتزوجي، ذلك أفضل حل لك.»(106)

ST2에서 지영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이 되지 않아 우울해하다가 졸업식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게 되고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는다. 예17)의 ST2는 아버지가 자신의 꾸중에도 무덤덤한 딸에게 한마디를 더 보탠 것이다. TT2에는 선택적 명시화와 화용적 명시화가 나타난다. 예1)에서 언급되었듯이 얌전한 성격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어른들이 선호하는 여성의 성격이다. ST2의 첫 번째 밑줄 친 부분은 ‘كوني هادئة(조용히 있어라)’로 번역될 수 있지만, TT2에서는 ‘كوني عاقلة(깨달아라, 정신차려라, 현명해져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시집이나 가’는 TT 독자에게 생소한 표현이기 때문에 ‘결혼해라’로 대체되었다. TT2에서는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생각이 축소된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ST1과 ST2에 나타난 가부장제가 번역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명시화 유형을 근거로 번역문을 분석했으며 다음과 같이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택적 명시화가 나타난 TT1에서는 장인의 불 같은 성격, 딸에 대한 아버지의 무관심, 아내의 행동에 대한 남편의 비하 등이 축소되거나 생략되는 경향이 있었다. TT2에서는 가정 내 아들딸 차별, 가부장적인 시대에 답답함을 느끼는 며느리의 심정, 가부장적인 가족으로부터 환영 받지 못하는 둘째 딸에 대한 어머니의 미안한 마음 등이 축소되었거나 생략되었다. 화용적 명시화가 나타난 TT1에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부장제와 관련된 어휘가 대체되었으며 원문의 의미가 잘 명시되었다. 비명시화가 나타난 TT1에서는 가부장적인 장인의 강인한 성격이 생략되는 경향이 있었고, TT2에서는 손자를 원하는 할머니의 집요함, 손자를 지나치게 아끼고 손녀를 멸시하는 할머니의 가부장적 사고가 축소되었다. 대체로 원문에 나타난 가부장제가 번역문에서는 축소되었는데, 주된 원인은 번역사의 해석에 따른 개입이나 오역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에서 밝혔듯 원문의 의미가 강조 또는 축소, 생략되었거나 오역된 사례 등을 정성적으로 분석했다. 한정된 수의 예로 명시화 양상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번역문 분석을 통해 적합한 번역의 예와 오역을 밝혀냈으며 재번역이 필요한 어휘나 문장은 대안을 제시했다. 향후 연구 범위를 넓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진 한자 번역, 아한 번역의 명시화 양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주제어: 명시화, 채식주의자, 82년생 김지영, 가부장제, 문학번역]



참고문헌

- 곽순례(2018). “아랍문학의 한국어 번역 및 한국문학의 아랍어 번역 현황에 대한 고찰과 과제”, 『번역학연구』 제19-4호, 7-43.
- _____(2022a). “한국어-아랍어 문화어휘 번역방법 연구”, 『인문사회21』 제13-4호, 3289-3304.
- _____(2022b). “문학텍스트의 한-아 기계 번역 오류 연구 - 『82년생 김지영』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제23-3호, 155-182.
- 권설아(2020). “영화 자막의 중한 번역 명시화 전략 - 명시화 기반 축소 유형과 기법”, 『중국어문학논집』 제122호, 269-296.
- 김자경(2021). “그래픽 노블 번역에 나타난 명시화 전략 고찰 - 『폴』 영역분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제25-3호, 1-23.
- 김홍균(2021). “영한 게임 번역에서의 명시화에 관한 고찰 -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중심으로 -”, 『한국게임학회』 제21-3호, 117-131.
- 남철진(2016). “문학번역에서의 명시화(explicitation)와 잉여적 요소 = 모언(莫言)의 『師傅越来越幽默』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제17-1호, 31-53.
- 노은주(2018). “적합성 제고를 위한 함축의 명시적 번역: 영역본 *The Vegetarian*에 사용된 부사 just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제22-4호, 59-85.
- 마승혜, 김순영(2021). “북한소설 『벗』 영역본의 명시화 전략 분석: 감정 표현을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제55호, 87-107.
- 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연구소(2002). “한국적 가부장제 속의 권위와 불평등”, 『여성 가족생활 연구보고서』, 7-10.
- 문재완, 계경문, 이훈동, 곽순례, 김정아, 박재원, 이명원, 이인섭(2016). 『파트와를 통해 본 이슬람 사회의 규범과 현실 2: 공동체 문화 관



- 런 파트와』, 서울, 세창출판사.
- 신지연(2017). “한중 번역에 나타나는 명시화 현상 고찰 -은희경의 『소년을 위로해줘』를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제41호, 65-87.
- 안미영(2018). “『The Vegetarian』에서의 명시화 번역전략 연구”, 『영어영문학』 제23-1호, 225-248.
- 엄익란(2014a). “아랍에미리트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따른 여성 리더십의 성향과 지향점 연구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 제24-2호, 179-204.
- _____(2014b). “아랍의 봄을 계기로 본 사우디 여성 운동에 대한 자각과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 연구”, 『중동문제연구』 제13-4호, 63-90.
- 이훈동, 계경문, 곽순례, 박재원, 이명원, 이인섭(2016). 『파트와를 통해 본 이슬람 사회의 규범과 현실 1: 가족 문화 관련 파트와』, 서울, 세창출판사.
- 임병필(2019). “이슬람 페미니즘의 가부장제 비판과 대응 및 극복 논리”, 『아랍어와 아랍문학』 제23-3호, 99-123.
- 조옥라(1986). “가부장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녹우회보』 제31호, 74-86.
- 최지수(2024). “독일 아동문학의 단순화·명시화 번역 전략에 관한 고찰 - 『기억을 잃어버린 여우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독어교육』 제90호, 83-105.
- 최효은(2024). “대중과학의 영한 번역에 있어서 인간 번역과 ChatGPT 번역의 명시화(explicitation) 양상 고찰- <BBC Science>의 표제 분석을 중심으로 -”, 『T&I REVIEW』 제14-1호, 149-175.
- 한정은(2020). “『빛의 제국』 중국어 번역본의 명시화 유형 분석”, 『통번역학연구』 제24-1호, 201-219.
- Baker, M.(1998).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한국번역학회 옮김(2009),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



전』, 서울, 한신문화사.

Blum-Kulka, S.(1986). Shifts of cohesion and coherence in translation. In: House, J. & Blum-Kulka, S.(eds.), *Interlingu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übingen, Narr, 17-35.

Klaudy, K.(1993). On explicitation hypothesis. In: Kohn, J. & Klaudy, K. et al.(eds.), *Transfere necesse est... current issues of translation theory, In honour of György Radó on his 80th birthday*, Szombathely, Dániel Berzsenyi College, 69-77.

Séguinot, C.(1988). Pragmatics and the explicitation hypothesis, *TTR: traduction, terminologie, redaction*, 1(2), 106-113.

강주화(2018). “‘82년생 김지영’, 9년 만에 나온 소설 밀리언셀러”, 『중앙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39085&code=11131100&cp=nv>(검색: 2024.01.30).

두산백과(n.d.). “가부장제”,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29026(검색: 2024.01.30).

임현석(2021). “‘82년생 김지영’은 이집트 여성들과 비슷해 공감”,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721/108061812/1>(검색: 2024.02.05).

한국문학번역원(2022). “해외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한국문학은? : 한국문학번역원 최근 5년 해외 출간 한국문학 판매현황 조사”,
<https://www.ltikorea.or.kr/kr/board/press/boardView.do?bbsIdx=14297&pageIndex=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ed%95%b4%ec%99%b8+%ec%b6%9c%ed%8c%90>(검색: 2024.12.19).



_____ (n.d.). “번역원지원 출간도서”,
<https://www.ltikorea.or.kr/kr/pages/archive/translationBook.do>
 검색: 2024.12.19).

한국학중앙연구원(n.d.). “가부장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0200>(검색: 2024.01.30).
 إسلام ويب(2020). "الضرب التأديبي للأطفال في الإسلام .. شروطه وضوابطه",
 (البحث: 2024.02.05) <https://islam.assawsana.com/category/14>
 عهد رستم(2020). "من التراث الشعبي المخباط لتنظيف الملابس المتسخة، صحيفة الغداء،
 (البحث: 2024.12.15) <http://fedaa.alwehda.gov.sy/?p=894>

<분석 자료>

조남주(2016). 『82년생 김지영』, 서울, 민음사.

한강(2007). 『채식주의자』, 서울, 창비.

محمود عبد الغفار(2018). *النباتية، القاهرة، دار التنوير*.

منار الديناري(2021). *كيم جي يونج مولودة عام 1982، القاهرة، دار صفصافة*.

논문접수일: 2024년 12월 30일

심사완료일: 2025년 01월 13일

게재확정일: 2025년 01월 15일